

인공지능(AI)·산업전환 시대 ‘지역 주도 일자리 혁신’ 본격화

- 3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제1차 지역고용아카데미’ 개최 -
-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등 지역 일자리 국정과제 추진 방향 공유 -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영미)는 오는 3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담당자 및 수행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2026년 제1차 지역고용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일자리 정책 관련 국정과제 추진 방향과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고용 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아카데미를 계기로 지역과 함께 기존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용 성과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단순히 취업자 수와 같은 외형적 지표 달성에 집중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기초 자치단체 간 협업과 초광역 단위 연계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지역 고용 상황 악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버팀 이음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과 연계해 지역의 고용 안전망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방향 및 지원상황 등을 공유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자율적으로 지역 맞춤형 고용정책을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지역고용활성화법이 국정과제의 취지와 방향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일자리 정책’ 특강을 통해 기술 변화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청년의 일터와 삶터를 함께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AX, GX로 대표되는 산업전환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지역이 스스로 현장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참석자들이 지역 고용정책의 핵심 주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제1차 지역고용아카데미 개요

담당 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지영철 (044-202-7404)
		담당자	사무관	조유미 (044-202-7408)



□ 개 요

- 일시: 2026. 3. 12.(목) 9:30~16:00
- 장소: 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세종시 다솜3로 66)
- 참석대상: 300여 명
 - (노 동 부) 고용정책실장,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담당사무관, 대표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담당자
 -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담당 실무자
 - (수행기관) 지역인자위 담당자 또는 지역고용전문관 등

□ 주요 내용

- 지역고용 정책 방향 안내
- 「AI시대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일자리 정책」 강의
- 지역일자리맵 활용법 안내 및 홍보
- 공시제 및 '26년 일자리대상 계획 안내

□ 세부 일정(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9:30~10:00	30'	▪ 등록	
10:00~10:10	10'	▪ 인사 말씀	고용정책실장
10:10~11:00	50'	▪ 지역고용 정책 방향 안내	지역산업고용정책과
11:00~11:50	50'	▪ 일자리 우수모델 공유	건국대 교수
11:50~13:30	100'	▪ 중식 및 소통	
13:30~14:20	50'	▪ AI시대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일자리 정책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30~15:00	30'	▪ 지역일자리맵 활용 전문가 되기	한국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
15:10~16:00	50'	▪ 공시제 및 '26년 일자리대상 계획 안내 ▪ 질의응답	지역산업고용정책과

